2017. 5. 26. (금) 언론보도

국민일보

2017년 05월 26일 (금)
16A면 사회

강원·경기 평화누리길 연결 기념 걷기행사

내달 17일 신탄리역~노동당사

강원도와 경기도는 다음달 17일 DMZ 접경지역 평화누리길 일원에서 '강원·경기 평화누리길 연결기념 걷기행사'를 연다. 이 행사는 강원도와 경기도의 평화누리길을 하나로 연결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. 참가자들은 행사 당일 오전 9시 경기도 연천군 신탄리역에서 출발해 강원도 철원군 노동당사까지 12㎞ 구간을 걷는다.

25일 강원도에 따르면 경기도 평화누리길은 김포·고양·파주·연천을 잇는 총연장 191㎞, 12개 구간으로 구성된 트레킹 코스로 지난 2010년 5월 개장했다. 강원도는 지난 2010년부터 철원·화천·양구·인제·고성을 연결하는 총 350㎞ 길이의 평화누리길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283.4㎞를 조성했다.

그러나 양 지자체의 평화누리길은 연천과 철원 경계지점의 4㎞가 연결되지 않아 그동안 별도로 걷기 행사 등을 진행해 왔다. 이에 두 지자체는 지난 2015년 4월 체결한 '강원·경기도 상생협력' 사업의 하나로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고 이번에 첫 행사를 열게 됐다. 도 관계자는 "앞으로 두 지자체가 힘을 합쳐 평화누리길을 DMZ 대표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세계적인 명품트레킹 코스로 만들겠다"고 말했다.

춘천=서승진 기자 sjseo@kmib.co.kr

5.7 X 17.7 cm

한국일보

2017년 05월 26일 (금)
14A면 충청/강원

강원·경기 평화누리길 연결 기념 걷기

강원도와 경기도가 다음 달 17일 '강원·경기 평화누리길 연결기념 걷기행사'를 진행한다. 이 행사는 지난 2015년 4월 남경필 경기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가 체결한 '강원-경기도 상생협력' 사업 중 하나다. 걷기행사는 오전 9시 신탄리역을 출발해 매년 겨울이면 거꾸로 고드름이 솟는 고대산 북쪽 경원선 폐터널을 지나 철원의 평화누리길 구간인 백마고지역을 거쳐 등록문화재 제22호인 노동당사까지 12㎞ 구간에서 펼쳐진다.

5.6 X 6.5 cm

경향신문

2017년 05월 26일 (금)
14면 전국

경기·강원 '평화누리길' 하나로 연결

강원·경기 지역의 비무장지대(DMZ) 인근에 조성된 '평화누리길'이 연결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됐다. 강원도는 최근 연천군 신탄리역에서 끝나던 '경기도 평화누리길'이 철원군 경계까지 연장되면서 양도의 평화누리길이 연결됐다고 25일 밝혔다.

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은 접경지역 인근의 평화·안보·생태관광지 등을 잇는 도보·자전거 길을 만드는 것이다.

강원도는 2010년부터 철원~화천~양구~인제~고성을 연결하는 350㎞의 평화누리길 조성 사업을 추진, 현재까지 283.4㎞를 완성했다. 이후 경기도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이번에 양 지역의 평화누리길을 연결하게 됐다. 강원도와 경기도는 오는 6월17일 연천군 신탄리역에서 출발해 철원군 노동당사에 도착하는 '평화누리길 연결기념 걷기행사'를 개최한다.

최승현 기자 cshdmz@kyunghyang.com

9.5 X 7.8 cm